

【논문】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에 대응하는 A. D. 스미스의 현상학적 방식에 대한 비판*

홍예리

【주제분류】 현대철학, 심리철학

【주요어】 지각 경험, 현상성, 지향성, 착시 논증, 환각 논증

【요약문】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직접 지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제공하는 입장으로는 간접적 실재론, 직접적 실재론, 그리고 관념론이 있다. 전통적으로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은 이 세 가지 입장 중 직접적 실재론을 실패하게 만드는 논증이었다. A. D. 스미스(A. D. Smith)는 저서 *The Problem of Perception*에서 이 두 논증을 논박하고, 최소한 이 두 논증에 의해서 직접적 실재론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보이고자 한다. 그의 논의는 지각 경험의 현상성이 가지는 본질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하여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에 대응하는 논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에 대응하는 스미스의 전략이 ‘현상적 동일성 전제’라는 하나의 숨은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숨은 전제가 스미스 본인이 받아들이고 있는 라이프니츠의 동일률과 상충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스미스의 전략이 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부족한 이 논문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좋은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심사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 D. 스미스(A. D. Smith)는 *The Problem of Perception* (Smith, 2002)에서 착시 논증(The Argument from Illusion)과 환각 논증(The Argument from Hallucination)에 대응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은 직접적 실재론(Direct Realism)을 기각하고 간접적 실재론(Indirect Realism)을 옹호하는 논증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 두 논증에 대응함으로써 직접적 실재론을 옹호하는데, 그는 최소한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에 의해서 직접적 실재론이 실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음을 보이려고 한다. 또한 그가 이 두 가지 논증에 대응하는 방식은 지각 경험의 현상성(phenomenology)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미스가 제안하는 지각 경험에 대한 설명 및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 후, 그 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지각의 문제’와 직접적 실재론의 실패

스미스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지각의 문제’로,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직접적으로 지각하느냐”라는 물음이다(ibid., 1).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직접적 실재론, 간접적 실재론, 그리고 관념론이다. 직접적 실재론과 간접적 실재론은 모두 실재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 두 입장은 단지 그 세계에 대한 지각이 직접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다. 직접적 실재론은 존재하는 물리적 세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보고, 간접적 실재론은 물리적 세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오직 간접적으로만 그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직접적 실재론은 위 ‘지각의 문제’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고, 간접적 실재론은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관념론은 우리가 세계를 직접적으로 지각하지만, 그 세계는 의식적인 상태로 환원가능하거나 의식적인 상태에 수반한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이 세 입장은 모두 지각 경험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입장들로, 지각 경험의 대상인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주장과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

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주장을 한다.

스미스는 이 세 입장 중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직접적 실재론으로 본다. 우리가 일반 물리 대상들을 직접 지각한다는 일상적인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은 직접적 실재론을 실패로 이끄는 것 같다. 스미스가 구성한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은 다음과 같다.

<착시 논증>

1. (착시의 가능성) 착시가 가능하다.
2. (감각 자료 입장) 어떤 대상이 실제로 가지지 않은 어떤 속성을 가진 것처럼 지각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속성을 가진 무언가를 의식한다.
3. (라이프니츠의 동일률 적용) 2에서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은 일반 물리 대상과 다르다.
4. (일반화 단계) 착시와 참인 지각 모두에서, 우리는 2의 대상을 의식한다.

<환각 논증>

1. (환각의 가능성) 환각이 가능하다.
2. (비-일반적인 대상 도입) 환각 상태의 주체는 무언가를 의식하고, 그 무언가는 일반적인 물리 대상이 아니다.
3. (일반화 단계) 환각과 참인 지각 모두에서, 우리는 2의 비-일반적인 대상을 의식한다.

두 논증 모두 첫 단계에서는 착시 또는 환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착시는 물리적 대상이 정말로 지각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 이든 간에 그 대상이 실제의 모습과 다르게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물에 반만 잠긴 막대기는 실제로는 곧은 막대기이지만 우리에게는 굽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막대기는 굽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성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환각은 물리적 대상이 실제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실제로 있으면서 참인 지각을 하는 경험과 주관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맥베스는 자신이 실제로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이 생긴 단검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경험을 한다. 맥베스가 보는 것은 실제의 단검이 아니다. (실제 단검은 허리춤에 차고 있으므로) 맥베스에게 단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위치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음으로 이 두 논증은 모두 라이프니츠의 동일률에 의존하고 있다. 라이프니츠의 동일률에 따르면 X와 Y가 동일한 것이라면 그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속성에 있어서도 다를 수 없다. 즉 그들은 모든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고, 하나라도 다른 속성이 있다면 그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식하는 것과 일반 물리 대상들 사이의 차이점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라이프니츠의 동일률에 따라, 우리가 의식하는 것과 일반 물리 대상들은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각 상황에 있어서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착시 상황에서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은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물리적 대상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에 잠긴 막대기는 실제로는 굵은 막대기이지만 우리에게는 굵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은 굵은 성질을 가졌지만 실제 막대기는 굵은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한편 환각에서는 대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물리적 대상은 존재한다. 맥베스가 단검을 환각할 때, 실제로 맥베스가 보는 그 위치에 단검은 없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 맥베스가 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단검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 실재론의 주장과 다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실제의 물리적 대상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된다. 즉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에 따르면 직접적 실재론은 실패한다.

만일 직접적 실재론이 실패할 경우, 스미스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각에 대한 설명은 관념론뿐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는 관념론을 선택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직접적 실재론을 옹호하고자 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직접적 실재론, 간접적 실재론, 관념론 중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으로 인해서 직접적 실재론이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

은 선택지는 간접적 실재론과 관념론 두 가지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간접적 실재론을 비정합적인 입장으로 본다. 간접적 실재론은 경험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세계가 ‘지각의 베일’ 뒤에 감추어져서 경험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¹⁾ 직접적 실재론자와 간접적 실재론자가 대화를 나눌 경우, 두 사람은 모두 현재 자신들이 보고 있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지시를 할 것이다. 이는 곧 간접적 실재론자도 그들 사이에는 공적인 지시체로서 물리적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적 실재론자에게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간접적 실재론자에 따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감각 자료(sense datum)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보기에, 간접적 실재론자의 이러한 주장은 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간접적 실재론자는 물리적 대상이 공적인 지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각되는 대상을 다른 것으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스미스에 따르면, 지각에 대한 입장들 중 간접적 실재론은 우리가 선택할만한 선택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에 의해서 직접적 실재론도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관념론뿐일 것이다. 그러나 관념론은 간접적 실재론과 직접적 실재론 두 입장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입장이라서, 적절한 선택지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스미스는 직접적 실재론을 실패로 이끌고 간접적 실재론의 승리를 가져오는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에 대응함으로써, 애초에 직접적 실재론이 실패하게 되는 바로 그 경로를 차단하고자 한다.

1) 간접적 실재론을 비정합적이라고 보는 스미스의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본 논문에서는 스미스 본인이 밝히는 정도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자세한 논의는 Smith(2002)의 ‘Introduction’을 참조하라.

II. 지각 경험에 대한 스미스의 입장

스미스는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 각각에 대해서 모두 둘째 단계를 부정하는 전략을 택하고자 한다. 그가 이러한 전략을 택하는 이유는, 일반 물리 대상과 다른 비-일반적인 대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각 논증에서 일반화 단계는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화 단계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다루도록 하고, 이 장에서는 우선 스미스가 지각 경험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제시하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스미스의 동기

스미스는 지각 경험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착시 논증의 둘째 단계에 등장하는 감각 자료 입장을 부정할 수 있는 방식이면서 또한 직접적 실재론을 옹호할 수 있는 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감각 자료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스미스가 착시 논증에서 부정하고자 하는 둘째 단계는 ‘F로 보이는 것이 있다’로부터 ‘F인 성질을 가진 어떤 것이 있다’를 추론한다. 물에 잠겨서 ‘굽은 막대기’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점으로부터 ‘굽은 성질을 가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굽은 성질을 가진 무언가’는 실제의 막대기와는 다른 것이다. 실제 막대기는 곧은 막대기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입장 중 하나인 감각 자료 입장은 ‘굽은 성질을 가진 무언가’처럼 우리의 경험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감각적인 성질을 가진 무언가를 감각 자료라고 불렀다. 감각 자료는 경험을 하는 주체가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심적인 대상을 말한다. 스미스는 착시 논증의 둘째 단계를 감각 자료처럼 일반 물리 대상과 다른 비-일반적인 대상을 도입하는 단계로 보고, 이 단계를 ‘감각 자료 입장’ 단계라고 한다. 그리고 바로 이 ‘감각 자료 입장’을 부정하는 길이 착시 논증을 차단하는 길이라고 본다.

스미스는 직접적 실재론을 옹호하려는 접근 방식으로서 감각 자료 입장을 부정하고자 하는 입장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현상적 적절성(phenomenological adequacy)이다. 현상적 적절성이란 시각 경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성(phenomenology)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경험의 현상성은 경험이 주체에게 이러저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실 때, 나는 커피의 색, 온도, 맛, 향 등이 이러저러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 이러한 현상성은 통상적으로 경험의 주체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착시 논증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착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현상성이 참인 지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물 속에 잠긴 막대기가 굽어보일 때 그 굽은 성질은 실제로 굽은 막대기를 볼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이다. 착시 논증은 바로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참인 지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성을 착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는지를 묻고 있으며, 감각 자료 입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참인 지각과 착시 상태에서 우리가 동일한 감각 자료를 지각한다고 대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감각 자료 입장을 부정하고 착시 논증으로부터 직접적 실재론을 구하고자 하는 입장도 현상적 적절성을 갖추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조건은 **행위-대상 구분 분석(the act-object analysis)**을 거부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감각 자료 입장이 이 구분 분석을 숨은 전제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행위-대상 구분 분석은 지각 경험을 a)무언가를 의식하는 **심적 행위**와 b)그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모두 **지각 경험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각 경험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 분석의 동기는 여러 서로 다른 지각 경험을 지각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통점을 찾고자 한 것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내가 노트북을 보고 있는 시각 경험과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있는 음악을 듣는 청각 경험은 모두 지각 경험이다. 그런데 두 경험 사이의 공통점은 내가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그 심적 행위뿐이다. 두 경험에 있어서 내가 사용하는 감각 기관은 다르며 내가 의식하는 대상 - 각각 노트북 화면과 음악 - 도 다르다.

감각 자료 입장은 심적 행위와 경험의 대상이라는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주어지는 감각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이

러한 성질들은 주체가 무언가를 의식하는 심적 행위와 구분되는 것이며, 지각 의식이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대상에 속한다고 본다. 물에 잠긴 막대기를 볼 때 내가 그것을 본다는 **행위**와 내가 보는 **‘굽어보이는 막대기’**는 구분된다. 굽은 성질을 가진 막대기는 내가 물에 잠긴 막대기를 볼 때 나의 심적 행위와 구분되는 그 심적 행위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대상은 실제로 물에 잠겨 있는 곧은 막대기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감각 자료 입장에서는 굽은 성질을 가진 그 막대기를 감각 자료라고 설명한다. 정리하자면, 행위-대상 구분 분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감각 자료 입장은 일반적인 물리적 대상과 구별되는 또 다른 대상으로서 감각 자료를 상정할 수 있었다.

스미스는 이처럼 행위-대상 구분 분석을 받아들일 경우 지각 경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적인 성질들을 심적 행위와 구분되는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감각 자료가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후보군에 상당히 강력한 후보로 등장하게 되므로, 감각 자료 입장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도에서 스미스는 **지각 경험의 감각적인 성질들**을 지각 경험에서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각 경험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로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미스는 자신의 과제를 첫째로는 지각 의식의 ‘지향성’, 즉 “현상적으로 세계를 향함”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과 둘째로는 ‘의식에 나타나는 감각적인 성질들’을 “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 자체의 본질적인 상태”로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ibid., 58). 첫째 과제는 현상적 적절성이라는 첫 번째 조건이 지향성의 문제로 환원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각 경험에서 드러나는 현상성이란 바로 그 경험이 어떤 대상을 향하는 것처럼 경험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과제는 행위-대상 구분 분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험에 나타나는 감각적인 성질들을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 자체의 성질로 분석하는 것이다.

2. 지각 경험의 지향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측면: 공간성, 자기-움직임, 앙슈토스

스미스는 지각 경험의 지향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로, 지향성은 감각적인 상태 자체에 드러난다. 그러나 감각경험이 항상 지향적인 것은 아니므로, 이 지향성은 단순 감각과는 다른 것이다. 둘째로, 스미스는 지향성이 인과적이거나 개념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 그가 지향성이 인과적이라는 점을 거부하는 까닭은 현상적 적절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각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의 대상을 지각하게 하는 인과적 요소는 경험에 현상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지향성이 개념적이라는 점을 거부하는 까닭은 그러한 설명이 지각적 의식의 대상이 가지는 객관성을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²⁾ 지향성이 개념적이라고 할 경우, 나와 길고양이가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참치 캔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길고양이는 참치 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지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각 의식에서 **감각적인 상태 자체에 드러나는 것이면서도, 비감각적이고 비개념적인 측면**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지각적 의식의 이 측면이 바로 외부 대상 지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³⁾ 조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감각적인 양상들이 비감각적 차원을 가졌고 바로 그 비감각적 차원이 우리에게 외부 대상을

2) 지각 경험에서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은 다음의 의미에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ibid., 66-67). 첫째로 이 대상들은 지각 경험과 독립적이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내 노트북이 나름의 지속적인 역사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이 대상들은 하나 이상의 주체가 동일한 대상을 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이다. 나와 내 친구는 모두 내 노트북을 다른 관점에서 동시에 지각할 수 있다. 셋째로, 이 대상들은 한 가지 이상의 감각에 의해서도 지각될 수 있다. 나는 노트북 위의 먼지를 닦을 때 노트북을 쳐다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참인 지각 경험이라면 단순히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것과 다르게 그 경험의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외부의 물리적 대상으로, 객관적인 성질을 가진다.

3) 스미스는 어떤 경험이 지향성을 가지면 곧 외부 대상을 직접 지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말하는 지향성은 단지 경험이 대상을 향하는 것 같다는 점이 아니라, 실제로 외부의 물리적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직접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제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드러내주는 것이라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 감각적인 양상은 지각 경험
이 될 것이다.

스미스는 위 조건들을 갖춘 ‘지각 의식의 비감각적 차원’으로서 지향성을 가지는 측면으로 세 가지 현상을 제시한다. 그 세 가지 현상이란 **현상적 3차원적 공간성**(이하 공간성), **자기-움직임**, 그리고 **양슈토스(Anstoss)**이다.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ibid., 184-185). 스미스가 지향성을 설명할 때 도입하는 지각적 의식의 감각적인 상태, 감각적인 양상 또는 지각적인 감각이라 함은 단순 감각과 지각 의식이 공유하는 어떤 감각적인 또는 질적인 성질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상태가 단순 감각의 상태와 같은 것은 아니다. 지각 의식은 감각과 동일한 질적인 성질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소개할 이 세 가지 비지각적인 측면이 지각에 지향성을 부여하여 지각을 지각이게끔 해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이 지각 경험의 본질적인 측면이자 지각 의식의 기본적인 원천이다.

세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공간성**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대상을 우리 몸 밖에 위치한 것으로 의식하는 현상이다. 스미스는 이를 “over-againstness”라는 표현으로 설명한다(ibid., 134). 대상은 ‘나의 몸을 넘어선 것’, ‘나에 외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스미스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차단(occlusion)’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ibid., 137), 지각 경험에 공간성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대상이 드러나는 것이 대상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가로막힐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간성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지각의 종류들도 있는데, 미각 및 후각을 통한 지각과 열감(radiant heat)에 대한 지각이다. 예를 들어, 후각의 경우, 꽃으로 가득 찬 방에 있을 때 꽃향기를 맡는 것과 내 코 바로 밑에 같은 종류의 꽃들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들이대었을 때 꽃향기를 맡는 것 사이에 공간적인 차이가 없다. 내가 눈을 감은 상태라면, 이 두 후각 경험이나에게 다른 공간성을 주지는 않는다. 스미스는 이 지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현상을 도입한다.

4) 양슈토스(Anstoss)는 본래 피히테(Fichte, Johann Gottlieb 1762~1814)의 용어이나, 스미스는 피히테의 용어를 차용하여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자기-움직임은 지각되는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각 기관의 움직임을 말한다. 이는 주체가 의식하는 움직임이지만, 동시에 암시적(implicit)이기도 하다. 이러한 설명은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주체가 의식한다는 것은 주체의 의식 상태에 등장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 암시적이라는 표현은 주체의 의식 상태에 등장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체가 의식하는 동시에 암시적인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스미스는 자기-움직임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동시에 대상에 대한 관점 변화를 들여온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자기-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늘 관점의 변화가 내포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에서 왼쪽 벽에 있는 대형 모니터를 보다가, 맞은편 의자로 옮겨가서 같은 모니터를 본다면 그 모니터를 보는 나의 관점은 달라진다. 이 때 나는 나의 움직임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관점의 변화를 의식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의 시야와 그 시야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 변화가 있는 시각 경험을 할 때마다 내가 ‘아, 내 관점이 바뀌었구나’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매 순간 자기-움직임과 그에 따른 관점에 변화를 의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움직임에 대한 감지는 내가 의식하는 것인 동시에 관점의 변화에 내포되어서 암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움직임은 공간성이 설명하지 못한 미각 및 후각을 통한 지각과 열감에 대한 지각을 설명할 수 있다. 미각을 통한 지각의 경우, 혀의 촉각과 움직임이 맛에 더해져서 파생적으로 지각을 얻게 된다. 후각과 열감의 경우, 우리는 냄새와 열기를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물리적 현상으로 지각하는데, 이 지각은 자기-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움직임으로써 어떤 냄새나 열이 그 공간에 있거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든 꽃향기 사례의 경우, 나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몸을 움직여봄으로써 방안에 꽃이 가득 찼을 때와 내 코 밑에 꽃다발을 들이대었을 때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감지한 물리적 현상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리적 대상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감각을 통해서 그 냄새나 열의 인과적 원인이 되는 대상을 감지하고, 2차적으로 그 대상에 냄새나 열을 귀속시키

는 덕분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자기-움직임이 반드시 능동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기-움직임의 중요한 역할은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점의 변화를 들여오는 것인데, 이 관점의 변화는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에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나를 뒤로 끌고 갈 때에도 나는 대상에 대한 나의 시각적인 관점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움직임과 다르게 능동성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각의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바로 세 번째 시각의 본질적인 현상인 **양슈토스**이다. 양슈토스는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장애물로서 외적 대상을 경험함을 말한다. 스미스는 양슈토스에서 주체의 일부가 직접 행위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가 주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미는’ 행위이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밀 때, 나는 내가 미는 힘이 무언가에 의해 가로막힌다는 것을 감지한다. 이는 내가 힘을 주지 않고 그저 외부의 무언가에 손을 대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스미스는 양슈토스를 “외부의 ‘힘’에 감각적으로 직면하는 것”라고 말한다(ibid., 154). 이는 어떤 견고한 대상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주체가 가하는 작용력에 대한 반작용력에 대한 경험, 즉 내 힘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을 순수하게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미스는 양슈토스가 대상의 견고함에 대한 촉각적 경험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양슈토스는 촉각보다 더 근본적인 현상으로, 오히려 촉각에서의 공간성을 형성하게 해 주고 외부 대상과 우리 몸을 공간에 위치시킬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스미스는 허공에서 벋둥거리는 신생아나 자기 몸을 만져보지 못한 시각 없는 생물체의 경우 공간 내에 있는 대상으로서 자신의 몸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ibid., 157). 즉 아예 대상이라는 것을 의식하기 전 단계의 (pre-objective), 순수하게 단순 감각만 있는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위 세 가지 현상들이 모두 **시각의 충분조건**이라고 말한다. 즉 이 세 현상들이 있다면 경험이 지향성을 가지고, 따라서 시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성을 가지는 경험이라면 시각이고, 자기-움직임을 가지는

경험도 지각이고, 앙슈토스를 가지는 경험도 지각이다. 한편, 공간성과 자기-움직임이 지각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즉 지각이면서도 공간성을 갖지 않는 경험이 가능하고, 지각이면서도 자기-움직임을 갖지 않는 경험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미각 및 후각, 열감에 대한 지각이 그 사례였다. 후자의 경우 눈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저 거기 있었다”라고 진술한 마비환자의 사례가 제시된다(ibid., 150). 또한 그는 공간성과 자기-움직임은 서로 독립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촉각의 경우 자기-움직임이 있어야만 공간성이 생기지만, 시각과 청각의 경우 공간성이 우선이고, 반드시 자기-움직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앙슈토스는 공간성이나 자기-움직임으로 환원될 수 없는 현상이다.

스미스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그는 세 가지 현상 중 앙슈토스가 다른 두 현상보다 더 기본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스미스는 앙슈토스가 촉각을 통한 지각의 선제조건이라고 말한다(ibid., 158). 왜냐하면 앙슈토스가 있어야만 촉각에 우선하여 자기 몸을 대상으로서 감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몸을 대상으로서 감지할 수 있어야 자기 몸과 구별되는 외부의 것으로서 대상을 의식하는 공간성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스미스가 구체적으로 앙슈토스가 공간성과 자기-움직임 각각에 대한 필요조건인지 밝힌 부분은 없지만, 앙슈토스가 지각 경험에서 가장 기초적인 현상이면서, 경험을 하는 주체가 가장 먼저 겪는 현상이고, 나아가 지각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현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스미스가 앙슈토스를 경험하기 전의 상태가 있으며 그 상태를 대상으로서의 자기 몸에 대한 의식조차 불가능하고 대상 의식 이전의 상태로 설정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앙슈토스라는 현상이 있어야만 주체가 자기 몸을 대상으로서 의식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상을 의식하는 지각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가지 현상 중 앙슈토스가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고, 앙슈토스가 있어야 나머지 두 현상이 가능하고, 나아가 지각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앙슈토스를 통해서 자기 몸을 대상으로서 의식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이로 인해서 공간성과 자기-움직임을 의식하는 것이 가능해진 이후에, 모든 지각 경험이 반드시 공간성과 자기-움직임을 다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스미스는 분명히 공간성과 자기-움직임이 각각 지각의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미스는 앙슈토스를 모든 지각적 의식의 필요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이 또한 아닌 것 같다. 지각 경험은 단순 감각과 감각적인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앙슈토스의 경우 ‘감각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ibid., 160), 그 어떤 감각 양상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힘을 직접 드러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스미스는 지각 경험의 기초로서 최초의 앙슈토스 현상이 있어야만 지각 경험이 가능하지만, 그 최초의 앙슈토스 현상 이후의 지각 경험들이 모두 반드시 앙슈토스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평범한 시각 경험만 보아도 우리가 외부의 힘을 직접 대면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의 앙슈토스 이후 대부분의 지각 경험들은 공간성과 자기-움직임 중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가질 것이다.

3. 지각적 의식의 두 종류: 앙슈토스에 대한 의식과 지각적 지속성에 대한 의식

이처럼 지각적 의식을 이루는 세 가지 비감각적이고 비개념적이면서 기본적인 현상들을 구분한 후, 스미스는 지각적 의식의 경우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 두 가지란 **앙슈토스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이 두 경우의 차이는 어떤 중심적인 감각(focul sensation)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앙슈토스는 감각의 수준을 넘어서서 외부의 힘을 직접 대면하는 것으로, 감각과 구분되는 또 다른 “하나의 완전한 양상”이다(ibid., 160, fn.54). 앙슈토스는 중심적인 감각이 없다. 그래서 앙슈토스의 경우 착시가 일어나도 외부의 힘을 직접적으로 지각한다는 점을 보이기 더 쉽다. 한편 앙슈토스가 아닌, 중심적인 감각이 있는 지각의 경우, 착시가 일어나도 외부의 물리적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각한다는 점을 보이기 조금 더 어렵다. 스미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 후자의 경우는 “외부의 대상이 수동적

으로 감각에 등록되는 상태”이고, 이 상태가 바로 착시 논증의 ‘홀그라운드’이기 때문이다(ibid., 170).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미스가 들여오는 개념은 ‘지각적 지속성’이다.

그러면 이제 앙슈토스와 앙슈토스가 아닌 지각의 경우 각각에 있어서 어떻게 외부의 물리적 대상을 직접 지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스미스의 설명을 살펴보자. 먼저 앙슈토스의 경우이다. 앙슈토스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외부의 힘 또는 순수한 저항감이므로, 가능한 착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힘의 크기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의 방향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나에게 가해지는 힘이 그리 크지 않은데 내가 그 힘을 크다고 느끼는 착시가 있을 수 있다. 또 실제로는 앞에서 가해지는 힘을 옆에서 가해진다고 느낄 수도 있다. 힘의 크기에 대한 착시의 경우, 스미스는 외부의 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활동할 때 가지는 힘에 대한 감지 때문에 이러한 착시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근육이 지친 상태라면, 우리는 물체를 미는 우리의 힘이 약해졌다고 느끼지 않고 물체가 무겁다고 느낀다. 즉 실제로는 내가 가하는 힘이 약해졌는데 외부의 힘이 강해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착시가 일어난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매개 대상 없이 외부의 힘을 직접적으로 의식한다. 힘의 방향에 대한 착시도 마찬가지이다. 스미스는 우리가 우리의 움직임의 진정한 궤적을 착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착시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내가 가하는 힘을 앞으로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을 다르게 의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부의 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의식된다.

앙슈토스의 경우에서 일어나는 착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외부의 반작용력에 대한 착시는 사실 우리가 가하는 작용력에 대한 착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착시가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외부의 반작용력, 그 힘 자체를 직접적으로 의식한다. 따라서 앙슈토스의 경우, 외부의 물리적 대상을 직접 지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착시의 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앙슈토스가 없는 지각 경험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가 바

로 감각적인 성질이 동반되는 지각 경험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각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현상 중에서 공간성과 자기-움직임이 있는 지각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스미스는 대상이 감각에 등록되는 지각적 의식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으로, **지각적 지속성**(또는 현상적 지속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지각적 지속성이란 주체의 감각은 변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 지각적 지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치 지속성, 크기 지속성, 모양 지속성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눈을 움직이고 고개를 돌려도 내 주변의 대상들의 위치는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치 지속성이라고 한다. 내가 대상에 다가갈수록 대상이 나의 시야를 차지하는 면적은 커지지만, 대상의 크기는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크기 지속성이라고 한다. 내가 동전을 옆에서 보아도, 동전은 여전히 둥글지만 단지 나로부터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모양 지속성이라고 한다. 이 모든 사례에서, 나의 시각 감각은 변하지만 대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속성들은 의식의 대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각 경험에서의 변화, 시각적 감각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는 감각에서의 변화들이 그 자체로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물리적 세계가 지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에는 변화가 있다. [...] 변화하는 감각은 항상 우리에게 변화하는 관계를 드러내어 주는데,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관계이다. 오직 그러할 때만 이러한 지속성이 이해될 수 있다.

[...] 한 감각 양상에서 어떤 현상적 지속성의 작동은 그 감각이 지각적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만약 그 해당 양상이, 앙슈투스와 다르게, 특징에 있어서 감각적으로 현시된다면, 그러한 지속성만으로도 감각을 이 경우에 지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ibid., 172, 이탤릭은 원문을 따랐다)⁵⁾

5) “such constancies involve a change in visual experience, a change in visual sensa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object of awareness does not itself appear to change at all. This is because the changes in sensation *themselves have objective significance*: there is a change in how the physical world perceptually appears to us. [...] the changing sensations always manifest to us a changing *relation* in which an intrinsically unchanging object comes to stand to us. Only so is such constancy intelligible at all.

세상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이 변할지라도, 그 변화 안에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감지하는 대상의 객관성이 있다. 스미스는 지각적 지속성이 앙슈토스를 제외한 지각 경험, 즉 감각적인 측면을 가진 지각 경험에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각적 지속성은 지각적 의식의 충분조건이었던 공간성과 자기-움직임의 필요조건이다. 이 말은 곧 공간성이 있다면 지각적 지속성이 있고, 자기-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도 지각적 지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이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경험된다면 위치 지속성이나 크기 지속성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관점이 변해도 대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자기-움직임의 경우에도, 대상과 독립적으로 나만 움직이고 있다고 경험하는 것은 곧 대상이 지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공간성과 자기-움직임이 모두 지각적 지속성을 필요로 하므로, 스미스는 “감각적으로 제시되는 감각 양상에 있어서의 지각적 지속성의 작동이 원조 지각(original perception)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한다(ibid., 174). 종합하여 보면, 감각적인 성질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감각 양상은, 그 감각 양상이 지각적 지속성을 가진다면 지각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역으로 그 감각 양상이 지각 경험이라면 지각적 지속성을 가진다고도 말할 수 있다.

III.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에 대한 스미스의 대응

그렇다면 위와 같은 스미스의 입장이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에 대응하는 데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먼저 착시 논증에 대한 대응부터 살펴보자. 착시 논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앙슈토스처럼 특수한 경우라기보다 물속에 잠긴 막대기나 노란 조명 아래에서 보는 하얀 벽, 타원으로 보이는 동전

[...] *the operation of some phenomenological constancy in a sense-modality is sufficient for that sense to be perceptual; and that if the modality in question is, unlike the Anstoss, sensuously presentational in character, it is necessary – such constancy alone enabling sensation to function here perceptually.*”

처럼 일상적인 경우였으므로, 앙슈토스와 구분되는 감각적인 측면을 동반한 지각 경험에 한정하여 스미스의 대응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착시 논증에 대응하는 스미스의 논증>

1. 우리의 직접적인 의식의 대상은 일반 물리 대상 또는 감각 자료, 둘 중 하나이다.
2. (귀류법을 위한 전제, 착시 논증의 둘째 단계인 감각 자료 입장의 주장) 우리의 직접적인 의식의 대상은 감각 자료이다.
3. 우리는 지각적 지속성을 직접적으로 의식한다.
4. 우리가 지각적 지속성을 직접적으로 의식한다면, 우리의 직접적인 의식의 대상은 감각 자료가 아니다.
5. (3과 4로부터) 우리의 직접적인 의식의 대상은 감각 자료가 아니다.
6. 우리의 직접적인 의식의 대상은 일반 물리 대상이다.

위 논증에서 중요한 부분은 논제 4이다. 감각 자료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각 경험의 감각적인 측면을 지각적 의식의 대상으로 보게 될 경우 감각이 달라질 때마다 그 대상인 감각 자료도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지각적 지속성은 아예 불가능하다. 감각 자료 입장에 따르면 끈은 막대기가 물에 들어가서 굽어보일 때 우리의 직접적 의식의 대상은 끈은 성질을 가진 것에서 굽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감각 자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물에 잠긴 막대기를 볼 때 막대기는 실제로 끈은 막대기가 수면 밑으로만 굽어보일 뿐이지 막대기의 끈은 성질은 유지된다고 보는 지각적 지속성과 양립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여 착시 논증에 대응한 후, 스미스는 남아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답한다. 그 중 두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적 지속성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움직일 때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각을 할 수 없는가? 이에 대해 스미스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직접적 실재론은 지각적 지속성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을 때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각적 지속성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도, 만약 우리가 움직인다면 지각적 지속성이 작동할 것이고, 우리는 대상에 대한 지각적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스미스는 지각적 지속성의 이러한 “가능성”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서의 경험도 지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본다(ibid., 179). 그리고 이 가능성은 움직임이 없는 지각 경험에서도, 그 지각 경험의 직접적인 의식 대상을 감각자료와 동일시할 수 없게 해 준다.

둘째, 착시 논증 옹호자들은 지각적 지속성을 거부할 것이다. 지각적 지속성에 따르면 감각적인 성질은 변해도 대상은 변하지 않는데, 착시 논증 옹호자들은 감각적인 성질이 변하면 대상도 변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동전이 측면에서 타원으로 보이면, 바로 그 ‘타원으로 보임’이라는 현상성이 지각적 의식의 또 다른 측면이고, 타원이라는 성질을 가진 어떤 것이 바로 지각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의식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착시 논증 옹호자들이 제시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착시가 아니라고 한다. 물론 동전이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을 ‘동근 물체’로 분류할 것이다. 스미스는 착시 논증 옹호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다다르게 된 것은 이들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컬러 패치의 2차원적인 배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ibid., 182). 그러나 그는 우리가 굳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버리고 “현상적으로 3차원적인 지각 경험과의 관계에서의 지각적 지속성이라는 근본적인 속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면(ibid., 183)”, 우리는 착시 논증에 대응하여 직접적 실재론을 옹호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환각 논증에 대한 스미스의 대응을 살펴보자. II 장에서 제시된 지각 경험에 대한 스미스의 입장은 환각 논증에 대한 대응에서도 이용된다. 환각 논증에 대한 스미스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ibid., 233-234).

<환각 논증에 대응하는 스미스의 논증>

1. (지각과 환각의 주관적 동일성으로부터) 지각 경험과 완전히 똑같은 비감각적 기능들(지각적 지속성과 양슈토스)이 환각의 현상적이며 지

각적인 본질을 구성한다.

2. (지각 경험에 대한 스미스의 입장에서) 1의 비감각적 기능들이 감각의 변화를 넘어선 지향적 대상을 제공한다.
3. (1과 2로부터) 지각과 환각은 의식에 동일한 종류의 대상을 가진다.
4. (1, 2, 3 및 지각 경험에 대한 스미스의 입장에서) 환각도 우리에게 일반 물리 대상을 드러낸다.
5. 지각과 환각의 대상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환각의 대상은 단지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논제 2는 II장에서 제시한 스미스의 입장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스미스는 지각 경험을 분석하는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앙슈토스와 지각적 지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참인 지각과 착시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일반 물리 대상을 직접적으로 의식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스미스는 “진정한 지각 (genuine perception)”이라고 하면 참인 지각과 착시 모두를 아울러 말하는 표현이라고 한다(ibid., 196).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일반 물리 대상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인 지각 경험과 현상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환각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환각에서도 우리는 참인 지각과 마찬가지로 현상성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환각에서도 앙슈토스나 지각적 지속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앙슈토스와 지각적 지속성이 진정한 지각에서 우리에게 일반 물리 대상을 의식하게 해주는 것이었으므로, 환각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그러나 단지 환각에서는 바로 그 물리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존재하지 않는 일반 물리 대상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스미스는 존재(entity)와 대상(object)을 구분한다. 환각의 경우, 환각을 하는 주체가 의식하는 대상은 있다. 맥베스가 단검을 환각하면서 ‘저것이 단검인가?’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분명히 단검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대상은 지향적 대상으로서 심리학적으로만 있을 뿐이다. 즉 환각의 경우 존재(entity)는 없지만, 대상(object)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스

미스의 전략에 따르면 환각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물리 대상을 가지고, 진정한 지각의 경우 존재하는 일반 물리 대상을 가짐으로써 직접적 실재론을 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스미스의 대응이 가진 내적인 모순⁶⁾

스미스는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 모두에 있어서 일반화 단계는 거부하지 않고, 비일반적인 대상이 도입되는 둘째 단계를 차단하고자 한다. 이는 그가 일단 비일반적인 대상이 도입되면 그 이후의 일반화 단계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는 착시 논증의 일반화 단계를 부정할 경우 “착시를 환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한다(ibid., 28). 왜냐하면 일반화 단계를 부정한다는 것은 ‘참인 지각과 착시의 경우 동일한 대상을 지각한다’라는 명제를 부정하는 것인데, 착시는 그 정의상 참인 지각과 동일한 대상을 지각하되 그 대상이 가진 속성이 아닌 다른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을 말하였으므로, 착시의 정의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환각 논증의 일반화 단계에 대해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상적 동일성 전제: 만약 두 경험이 현상적으로 동일하다면, 그 두 경험은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

6) 이 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께서 크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지적을 해주셨다. 스미스는 ‘object’와 ‘entity’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스미스가 사용하는 방식에 따르면 현상적 동일성 전제에서 말하는 ‘대상’과 스미스가 제시하는 각 논증에서 등장하는 ‘대상’이 같은 의미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전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나는 이 점이 충분히 가치있는 반론이라고 생각한다. 이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미스가 사용하는 용어의 구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이 절 후반부에서 제시한 트리아트와 같은 사례를 스미스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아쉽지만 시간과 지면의 한계상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만약 스미스가 위와 같은 전제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환각 논증의 일반화 단계를 부정하여 형이상학적 선언주의와 같은 입장을 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⁷⁾ 형이상학적 선언주의는 두 경험이 현상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도 그 두 경험이 전혀 다른 대상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적 선언주의자는 현상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거나 동일한 본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러한 노선을 택하지 않는다. 또한 환각을 하는 주체가 의식하는 대상이 아무 것도 없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거부할 때에도 이 입장을 현상적 부적절성을 지적한다. 현상적으로 볼 때 환각을 하는 주체도 분명히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II장에 제시된 스미스의 논증에서, 스미스는 환각에서도 지각적 지속성과 앙슈토스가 현상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환각에서도 지각과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스미스는 두 경험이 현상적으로 동일하다면 그 두 경험은 동일한 대상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스미스는 환각을 하는 주체가 의식하는 것이 지각에서와 완전히 동일한 일반 물리 대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당연하게도, 환각은 그 정의상 일반 물리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대상이 있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스미스가 택한 전략은 그 일반 물리 대상이 단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가진 두 대상을 동일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이프니츠의 동일률은 두 대상이 동일하다면 모든 속성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속성들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어떠한 함의를 갖지 않는다. 스미스 또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스미스 본인이 직접적 실재론을 반대하는 논증들의 종류를 나누면서 이러한 논증들이 모두 라이프니츠의 동일률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스미스는 여러 종류의 것들이 라이프니츠의 동일률의 적용을

7) 스미스는 선언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이 선언주의를 택하지 않는 입장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는데, 스미스의 논의에 대한 기존의 많은 비판들은 선언주의에 대한 스미스의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받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논증들의 공통점은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 일반적인 지각적 상황에서 의식의 직접적인 대상은 일반 물리 대상이다 —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의식의 직접적인 대상]은 그러한 대상[일반 물리 대상]과 동일하다. 따라서 직접적 실재론에 반대하는 논증들은 모두 일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의식의 직접적 대상과 관련된 사실을 찾거나, 그 반대임을 찾음으로써 이 입장을 논박하려고 한다. 여기 몇 가지 가능한 차이점들이 있다. [...] 의식의 직접적 대상과 일반 대상과 관련하여, (a) 하나는 진정한 속성을 가졌고 다른 하나는 가지지 못한다. (b) 하나는 다른 대상과 진정한 관계를 가졌으나 다른 하나는 가지지 못한다. (c) 하나는 어느 한 장소에 존재하나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d) 하나는 어느 시간에 존재하나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e) 하나는 존재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ibid., 8, 둘째 문장의 [] 안의 부연설명은 필자의 것이다.)⁸⁾

위 인용문을 볼 때, 스미스는 라이프니츠의 동일률이 특별하게 ‘존재 여부’를 배제하고 동일성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는 또한 한 쪽의 대상은 존재하고 다른 한 쪽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차이점에 의존하여 직접적 실재론을 반대하는 논증을 바로 환각 논증으로 정의하고 있다(ibid., 9). 그렇다면 라이프니츠의 동일률에 의하면 존재하는 일반 물리 대상과 존재하지 않는 일반 물리 대상을 동일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스미스는 분명 환각의 대상과 진정한 지각의 대상을 동일한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미스에게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 전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What all such arguments do have in common is a reliance on Leibniz’s Law. ... that the immediate object of awareness in standard perceptual situations is a normal physical object – in other words, that it is identical to some such object. Arguments against Direct Realism therefore all attempt to refute this suggestion by finding some fact concerning the immediate object of awareness that does not hold of the normal object, or conversely. There are a limited number of possible discrepancies here, ... Concerning the immediate object of awareness and the normal object: (a) one possesses a genuine attribute that the other lacks; (b) one bears a genuine relation to another item that the other does not; (c) one exists at a place where the other does not; (d) one exists at a time when the other does not; (e) one exists and the other does not.”

추가 전제: 라이프니츠의 동일률을 적용시킬 때, 동일성을 판단하는 조건에 ‘존재 여부’는 속하지 않는다.

추가 전제는 비록 한 쪽은 존재하고 다른 한 쪽은 존재하지 않아도 그 두 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존재 여부’라는 조건을 배제하고 동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상적 동일성 전제에 추가 전제가 더해질 경우, 맥베스의 환각 속 단검과 그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단검뿐 아니라 환각에서 보는 분홍색 코끼리와 엄청난 비용의 유전자 조작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홍색 코끼리도 동일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상들을 동일한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비직관적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추가 전제를 따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는 그리 쉬운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같은 문제는 착시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특히 착시의 경우 스미스의 입장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가 환각 논증에 대해서 현상적 동일성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환각 논증에 대응하는 그의 논증은 착시 논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시하였던 지각 경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상적 동일성 전제는 착시를 설명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에 잠겨서 굽어보이는 막대기와 그 막대기와 정확히 동일한 각도로 구부러진, 물에 잠기지 않은 막대기를 보는 두 경험이 있다고 하자. 수면에 잠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물에 잠기지 않았지만 굽은 막대기 앞에 셀로판지와 같은 장치도 했다고 하자. 현상적 동일성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스미스는 두 경우 모두 일반 물리 대상인 막대기를 본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두 경험의 대상인 막대기는 동일한 막대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물에 잠긴 막대기는 실제로 굽은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다. 반면 물에 잠기지 않은 구부러진 막대기는 실제로 굽은 성질을 가졌다. 그렇다면 스미스는 한 쪽은 굽은 성질을 가졌지만 다른 한 쪽은 곧은 성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상이 동일하다고 말할 것인가? 만약 여기에서도 스미스가 굽은 성질 또는 곧은 성질은 제외하고 두 대상을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는 또 다른 추가 전제를 필요로 할 것일 텐데, 그 또 다른 추가 전제는 두 대상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속성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가 전제를 요구하게 된다면 스미스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인 현상적 적절성을 위반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이 추가 전제가 현상적 동일성 전제와 상충되므로 라이프니츠의 동일률과 현상적 동일성 전제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아마도 스미스는 타원으로 보이는 동전이 사실은 착시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처럼, 시각적 지속성에 호소해서 물에 잠긴 막대기는 착시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물에 담갔을 뿐, 막대기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변한 것이다. 따라서 물에 잠긴 막대기를 보는 경험의 대상은 실제로 끈은 막대기이지만 단지 물에 잠겨서 굵어보일 뿐이고, 이 경험의 현상성은 실제로 같은 각도만큼 굵은 다른 막대기를 보는 경험의 현상성과는 다르다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막대기가 잠긴 것으로 보이는 수면의 출렁임 등이 후자의 경험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례를 고려해보자. 물에 잠긴 막대기, 타원으로 보이는 동전, 노란 조명 아래에서 보는 하얀 벽이 너무나 일상적인 사례여서 시각적 지속성에 호소해서 착시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트릭아트 뮤지엄에 있는 트릭아트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바닥에 그려진 것은 2차원의 그림이다. 하지만 착시가 일어나는 어떤 절묘한 각도에서 정지한 상태로 이 그림을 볼 경우, 이 그림은 매우 3차원적으로 보여서 마치 길에 구덩이가 파인 것처럼 보인다. 특정한 각도에서 정지한 상태로 이 그림을 보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스미스는 정지한 상태의 시각 경험도 시각적 지속성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각 경험에 속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충분히 생생한 트릭아트라면, 그 그림을 착시가 일어나는 바로 그 각도에서 처음 본 사람은 자신이 움직여도 여전히 그 3차원적인 구덩이가 그대로 있고 자기 몸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에게 그 구덩이는 자신의 몸 너머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빠질까봐 두려

운 감정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제 트릭아트에서 경험하는 것과 아주 똑같이 생긴 구덩이가 정말로 눈앞에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두 경험은 현상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트릭아트에서 지각의 대상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 경험은 환각이 아니다. 단지 참인 지각과 현상적으로 동일한 착시이고, 실제로는 2차원이라는 속성을 가진 대상이 마치 3차원이라는 속성을 가진 것처럼 경험되는 것이다.

현상적 동일성 전제에 따르면 스미스는 이 두 경험의 대상을 같다고 해야 한다. 게다가 트릭아트의 경험은 환각처럼 일반 물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스미스는 환각을 하는 맥베스에게조차 단검처럼 보이는 대상이 있다고 말했는데, 눈앞의 트릭아트를 보는 주체는 환각을 하는 맥베스보다 나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 두 경험의 대상은 모두 구덩이인가? 만약 현상적 동일성 전제를 고려한다면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현상적으로 주체는 구덩이를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물리 대상은 구덩이가 아니라 트릭아트라는 점이다. 이 사례에서 스미스는 지각적 지속성에도 호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사례에서는 지각적 지속성과 공간성이 바로 그 착시를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트릭아트는 지각적 지속성과 공간성을 유도하도록 의도적으로 절묘하게 그려진 것이다. 반면 스미스가 트릭아트의 경험에서 주체가 지각하는 것은 2차원적 그림이라고 대답할 경우, (동일한 현상성을 가졌지만 트릭아트의 대상은 그림이고 실제 구덩이를 보는 경험의 대상은 구덩이이므로) 그는 현상적 동일성 전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주체가 경험하는 현상성 - 정말로 구덩이가 앞에 있는 것 같은 현상성 - 을 적절하게 설명해낼 수도 없게 된다.

트릭아트의 사례는 스미스가 받아들이고 있는 전제들 사이에 무언가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라이프니츠의 동일률) 동일한 두 대상은 모든 속성을 공유하여야 한다.
2. (현상적 동일성 전제) 두 경험이 현상적으로 동일하다면, 그 두 경험은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
3. (각 논증에 대한 대응) 모든 속성을 공유하지 않아도 두 대상은 동일할

수 있다.

스미스는 위 세 가지 논제를 모두 받아들이고자 한다. 라이프니츠의 동일률은 통상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논제이고, 스미스도 이 논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ibid., 25). 두 번째 논제는 앞서 보았듯이 스미스가 강한 직관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이다. 그는 참인 지각과 마찬가지로 착시에서도 앙슈토스와 지각적 지속성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시에서도 일반 물리 대상을 지각할 수 있다고 말하고, 환각에서도 이 두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지 존재하지 않을 뿐인) 일반 대상을 가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에 대한 스미스의 대응을 보면, 그는 세 번째 논제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착시의 경우 실제로 그 대상이 가진 속성과 드러나는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일한 일반 물리 대상이라고 말하고, 환각과 참인 지각의 경우 한 쪽의 대상은 존재하고 다른 한 쪽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상 모두 일반적인 대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논제는 첫 번째 논제와 상충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논제가 세 번째 논제를 주장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있다. 참인 지각, 착시, 환각은 현상적으로는 동일할 수 있지만 그 정의상 서로 다른 경험이다. 그런데 스미스는 이 경험들이 현상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 모두 앙슈토스와 지각적 지속성이 있다는 점 – 에 주목하여 이 모든 세 가지 경우에서 일반적인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 가능하되, 환각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상을 지각한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내적 모순은 지각 경험에 대한 스미스의 입장이 극복해야 하는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V. 스미스의 입장이 가지는 의미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스미스의 입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첫째는, 기존에 분석철학적 전통에서 다루어진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 및 직접적 실재론, 간접적 실재론, 관념론에 대한 논의를 일명 대륙 철학적 전통에서 다루어 온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각 경험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개념인 앙슈토스는 독일 관념론자인 피히테의 개념이었다. 지각 경험의 현상성을 중요시하여 현상성을 토대로 지각 경험 전반을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들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기는 하지만,⁹⁾ 스미스의 입장은 현상학적인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면서도 특히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이라는 전통적인 논증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둘째로, 지각 경험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입장을 토대로 우리가 물리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각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기존의 입장들이 언어적인 차원 또는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이나 환원을 통해서 지각 경험과 지각적 의식이라는 주제에 접근한 반면, 스미스의 입장은 지각 경험이 가지는 고유한 현상성이라는 특성을 분석하여 지각 경험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확보한 후 이를 기반으로 착시 논증과 환각 논증을 논파하려고 한다. 이는 아마도 그의 입장이 대륙 철학적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점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도는 지각 경험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스미스는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에서부터 쇼펜하우어, 토마스 리드, 칸트, 하이데거, 셀라스, 맥도웰, 에반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학적 및 의학적 자료를 동원하여 다양한 감각 양상들에 대해서 많은 예시와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의문점은, 스미스의 입장이 현상성을 중심으로 지각 경험을 설명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입장을 가진 다른 현대 철학자들의 논의 중 현상적 지향성(phenomenal intentionality)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입장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¹⁰⁾ 이들의 입장들 사이에 어떠

9) 테렌스 호간(Terence Horgan), 존 티엔슨(John Tienson), 조지 그레이엄(George Graham), 미셸 몬태규(Michelle Montague), 유리아 크리겔(Uriah Kriegel) 등의 철학자들이 있다. Bayne, Tim & Montague, Michelle(2011), Kriegel, Uriah(2012), Zahavi, Dan(2012) 등의 자료가 유용했다.

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이들의 주장 뒤에 숨은 동기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투 고 일: 2016. 03. 28.
심사완료일: 2016. 04. 21
게재확정일: 2016. 04. 22

홍예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
- 10) 한 심사위원께서 스미스가 현대 철학자들의 논의를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해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제출한 원고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스미스의 입장과 비교하여 다룰만하다고 생각한 철학자들은 각주 9번에 소개한 철학자들로, 이들의 입장은 ‘현상적 지향성(phenomenal intentionality)’라는 개념을 논의하는 입장들이다.

참고문헌

- Bayne, Tim, and Montague, Michelle. *Cognitive Phenome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Dicker, Georges. "The Problem of Perception, by A. D. Smith."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4.3 (2006): 423-30.
- Grossmann, Reinhardt. *The Structure of Min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5. Print.
- Kriegel, Uriah. *Phenomenal Intenti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Macpherson, Fiona. "Review of *the Problem of Perception* by A.D. Smith." *Philosophical Books* 45.3 (2004): 255-7.
- Prosser, Simon. "Review of *the Problem of Perception*." *The Philosophical Quarterly* (1950-) 54.217 (2004): 640-2.
- Reid, Thomas, and Wozzley, A. D. *Essays on the Intellectual Powers of Man*. London: Macmillan and Co., Limited, 1941.
- Robinson, Howard. "Review of *the Problem of Perception*." *Mind* 117.466 (2008): 520-4.
- Siegel, S. "Direct Realism and Perceptual Consciousnes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73.2 (2006): 378-410.
- Smith, A. D. *The Problem of Percep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In Defence of Direct Realism."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73.2 (2006): 411-24.
- Tumulty, Maura. "Review of *the Problem of Percep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101.1 (2004): 44-53.
- Zahavi, Dan. *The Oxford Handbook of Contemporary Phenomen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ABSTRACT

A critical comment on A. D. Smith's
phenomenological approach against the argument
from illusion and the argument from hallucination

Hong, Ye-Ri

There are three theories which address the question of whether we can directly perceive the physical world. These are the theories of direct realism, indirect realism, and idealism. Among them, it appears that direct realism has been defeated by the argument from illusion and the argument from hallucination. In his book *The Problem of Perception*, A. D. Smith attempts to show that direct realism is not defeated by at least these two arguments. His defense of direct realism against the two arguments is based on his account of the phenomenology of perceptual experience. In this paper, I show that there is a hidden assumption, referred to as 'the identity of phenomenology' in his work and that the assumption contradicts Leibniz's law of identity, which is the very law accepted by Smith himself.

Subjects Class: Contemporary Philosophy, Philosophy of Mind

Keywords: perceptual experience, phenomenology, intentionality, the argument from illusion, the argument from hallucination